

서울은 세 번 다르게 투표했다

- 시장은 국민의힘, 구청장은 민주당, 비례는 무승부

선출직	민주당	국민의힘	결과
시장	정원오 47.80%	오세훈 49.49%	국민의힘 승
구청장 25개 합산	51.42%	46.89%	민주 17:8
광역비례	43.86%	44.00%	동률

서울에서는 세 가지 다른 결과가 나왔다. 시장은 국힘, 구청장은 민주, 광역비례는 무승부.

● 광역은 자산, 기초는 생활: 같은 유권자가 다른 기준으로 찍었다

시장은 오세훈, 구청장은 민주당이라는 교차투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?

- **광역(시장)** = 부동산 정책, 도시계획, 자산 관리의 책임자 + 인물론
→ 자산 보유·기대자에게 유리한(익숙한) 오세훈 선택
- **기초(구청장)** = 생활행정, 복지, 교육
→ 정당 색채와 생활 밀착성으로 민주당 후보 선택

이 교차 투표는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교한 계산이다. 같은 사람이 다른 층위에서 다른 우선순위로 투표권을 행사했다.

● 서울은 자산 투표 + 인물 투표의 합이었다

서울에서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은 48.07%, 민주당 광역비례 정당지지율보다 4.21% 높다.

이는 타 시도 민주당 광역지자체장이 당 광역비례 정당 지지율보다 많이 받은 대구(12.26%), 광주(10.33%), 제주(13.74%), 경남(7.42%), 충북(6.8%), 울산(6.27%), 부산(6.25%), 강원(6%), 경기(6.01%), 세종(9.44%), 충남(4.83%), 대전(4.78%) 등 다른 후보의 인물 프리미엄보다 득표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정원오 후보가 여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보다 개인 고유 득표력이 떨어졌던 반면, 오세훈 후보의 인물 프리미엄은 5.49%로 다른 국민의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즉, 국민의힘에서 가장 경쟁력 있던 후보와 민주당 타 후보 대비 개인 고유 득표력이 떨어진 후보와의 경쟁이었다.

- 선거 후 당사에서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사후조사 결과, 서울시장 최우선 투표결정요인으로 58.7%가 후보자 개인을 선택했다.
- 아파트 매매가와 오세훈 시장의 득표율 상관계수가 $r=0.934$, 행정동 평균 공시가격 1억 상승 시마다 민주당 득표율은 국민의힘 득표율 대비 -3%p 하락 경향

즉,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자산과 함께 인물경쟁력이 함께 결정한 선거였다.

● 광역비례 -0.14%p: “정당지지율 무승부”의 정확한 의미

서울 광역비례 민주 43.86% vs. 국힘 44.00%는 사실상 동률이다. 이는 전국 광역비례(민주 우위 약 7~10%p)와 크게 다르다.

서울은 정당 지지의 원형에서 동률에 가깝다. 전국 구도와 서울 구도는 다르다. 서울의 기본 정치지형은 광역비례 정당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.

서울시민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다. 서울의 유권자들은 직위별로 다르게 판단했다.

- 시장에게서 자산·도시 계획·행정 안정성·인물을 봤다.
- 구청장에게서는 생활 행정과 지역 인물을 봤다.
- 비례에서는 정당 브랜드를 봤고, 거의 동률로 나타났다.

그래서 서울은 “민주당의 패배”이면서 동시에 “민주당 생활 행정 신뢰”가 남은 지역이다.

공공정책·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

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/ 가장 정확한 조사
지자체,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, 빅데이터 분석, 여론조사, 선거컨설팅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, 정우빌딩 9층(여의도동 13-25)